

2018년 3월 29일

csf@kiep.go.kr

린이푸(林毅夫) 교수의 중국 개혁개방 40년 회고



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베이징대 린이푸(林毅夫) 교수는 "발전과 전환의 목표전략성과: 중국개혁개방 40년 회고"를 주제로 발표

강연회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개혁개방의 중대 사안들은 검토하는 자리로,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에서 마련함. (* 아래는 린이푸 교수의 강연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종합한 내용임.)

□ 개혁개방 이전, 중국은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였고 시장경제에서 자생능력이 없었음.

- 1950년대 초 중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국방과 군사력에 주력하였고 기술과 개발이 국가 안보에 집중되어 있었음. 그러나 국방 산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이고, 당시 최신 기술은 특허권 보호로 인해 중국 스스로 연구개발해야 했음.
- 1960년대 이후 공업화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, 대량의 노동력은 농촌에 머무르게 되었음.

□ 개혁개방 이후, 중국의 경제규모는 약 40년간 32배 증가하였고 연평균성장률은 9.6%로, 인구와 지속기간을 고려할 때 유례가 없으며(중국의 기적), 이는 후발자 우위가 주요

- 지속적 경제발전은 후발자 우위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된 결과로, 2차대전 이후 200개 경제권 중 단 13개만이 25년 연속 7%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였고 중국도 그중 하나
- 개혁개방에 따른 이행기에 필요한 재정보조를 하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였고, 특구를 지정하고 수출·공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경쟁력 제고
- 이를 통해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자본 빈국에서 자본 부국으로 발전하였고, 비교 열위 산업이 비교우위로 변화

- 즉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중국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며, 현재 중국은 기술의 진보와 혁신으로 노동·자본 중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.

□ 또한 중국은 기존의 외국 경제이론 등을 답습하지 않고 중국 현실에 맞는 방법을 추구

- 대다수 개도국들은 지도자의 리더십 하에 공업화·현대화를 진행했으나, 정부의 시장 간섭과 시장 왜곡으로 인해 선진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
-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사유화 개혁을 한 국가들은 성장 속도가 더디었음.
- 1980~'90년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던 국가들은 시장의 분배 기능에 의지했으나, 대량 실업 및 사회적·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음.
-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서구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맞게 발전하지 않았음.
- 이론과 경험의 적용은 조건의 유사성에 달려 있으므로, 개도국의 경제발전 이론은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경제조건에 근간해야 함.
- 등소평의 해방사상과, 실사구시, “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” 등을 인식하여 점진적 개혁 추진

□ 환경 문제, 부패와 소득격차 확대 등 중국경제에 대한 중국 국내외의 비판적인 전망도 다수

- 환경 문제는 농업 위주의 경제가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겪게 되는 문제로, 중국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5대 발전이념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견지하고 있어 해결될 것으로 전망
- 반면, 부패와 소득격차 확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함.
 - 개혁개방 이전에는 대형 국유기업들에 대한 재정조달을 통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들도 성장시킬 수 있었으나, 개혁개방 이후에는 자본 부족과 은행 대출로 인해 국유기업들의 생산효율이 낮아짐.
 - 민영기업들은 은행 대출과 주식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충당하였고, 이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가계, 중소기업 등으로 부채가 전가되었으며, 대출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더 큰 부를 축적함에 따라 빈부 격차가 확대됨.
 - 통신·전기·은행 등 산업은 본래 국유기업으로 시작해 민영화를 거쳤는데, 이 과정에서 부패가 심각해짐.

□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중국 국내외 요인으로 둔화될 전망이지만, 이는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후발자우위가 남아있어 성장 여력이 충분하고 다른 개도국에 귀감이 될 수 있음.

-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, 수출 증가속도와 민간 투자 적극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 성장을 둔화는 불가피
-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체제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경제체제의 국가들도 경제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, 둔화폭도 중국보다 큼.
-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/7 수준으로, 후발자우위를 활용할 여지가 남아있으며, 중국이 매년 6.5% 이상의 속도로 성장을 유지하면 세계경제도 고속 성장이 가능

- 개도국의 발전과정에서 시장간섭과 왜곡, 지역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, 이는 이론적 해결이 불가능하고, 실사구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.
 - 19대 전인대에서 제시되었듯, 실천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함.
- 중국은 질적 성장에 주력하면서, 2035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, 2050년까지는 ‘부강·민주·文明·조화’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계획
 -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개방을 결정하여 남아있던 보호무역, 시장간섭, 시장왜곡 등을 철폐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할 계획
- 중국의 조건은 여타 개도국들의 조건과 비슷하므로 중국의 경험은 다른 개도국들이 경제발전에 참고할 만한 교훈을 제공 CSF

참고자료

『北大国发院』, 「“改革开放40周年”系列讲座举行, 林毅夫教授首讲」, 2018-03-05
『北京大学经管书苑』, 「两会面对面 | 林毅夫: 中国经济怎么看」, 2018-03-12
『社会科学报』, 「林毅夫: 改革开放“四十年”, 世界看到了“中国智慧”」, 2017-12-25
『第一财经日报』, 「林毅夫: 改革开放近40年中国经济创造奇迹的原因」, 2017-12-12
『社科大师』, 「林毅夫: 经济史中的中国现象 | 讲座全文」, 2018-03-05

(자료정리: KIEP 북경사무소)